

아마추어천문가
이성주
누원고등학교 교사



이성주 씨가 근무하고 있는 누원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도봉산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했다. 일주일 전 내린 폭설과 연일 이어진 강추위로 철교 밑으로 보이는 한강은 군데군데 꽁꽁 얼어붙고 있었다. 도봉산역에 도착해 역을 나서니 부는 바람은 살을 에이듯 차가웠지만 투명한 대기 너머로 보이는 눈 덮인 도봉산의 모습은 상쾌하다.

방학 중인 조용한 학교에서 이성주 씨가 건네는 따뜻한 원두커피 한 잔으로 언 몸을 녹이며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아마추어 활동은 어렸을 적부터 했습니다. 정확히는 1976년 겨울부터죠.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우연히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보게 됐고, 거기서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잡지의 발행인이 현재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의 전신인 한국아마추어천문가회(KAAA, Korea Amateur Astronomers Association)의 회장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잡지에 단체를 홍보하는 편이 있었고, 그걸 보고 아마추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망원경을 만들겠다고 어울렸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어느새 30년이 넘었네요.”

아마추어 천문 초창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성주 씨는 아마추어들의 장비와 그 장비에서 나오는 사진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한다.

“어렸을 때 뉴턴식 반사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반사경을 직접 연마해보지 않고서는 명함도 못 내밀 때였어요. 간단한 경위대도 만들고, 파이프를 적당히 구부려서 적도의도 만들었죠. 나중에는 미동손잡이가 달린, 제대로 된 적도의도 만들

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기성품만은 못하더군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조건으로 부모님께서 6cm 굴절 망원경을 사주셨어요.”

이렇게 구입한 망원경을 사용해 흑백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관에 맡겼지만 엉망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현상과 인화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다.

“친구네 화장실이 암실이었어요. 거기서 행성 사진을 인화했는데, 목성의 줄무늬가 나온 것을 보고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터가 달린 적도의였지만 집의 전원을 쓰는 AC 모터가 달려 있어서 야외에서는 손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수동 가이드는 인내심과 감각이 있어야 해요. 오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집안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추위 속에서 몇 십 분을 같은 자세로 숨을 죽이면서 별을 쫓아야 하죠.”

방학이면 친구들의 친인척 집이 관측지였다. 무거운 망원경을 나눠서 들고, 메고 별을 찾아 다녔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보고 싶어서 소백산천문대를 찾기도 했단다. 처음은 망원경 길모습만 보고 두 번째 갔었을 때야 사정사정해서 직접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성주 씨는 한국아마추어천문가회를 거쳐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때까지 활발히 활동을 했었다. 지금은 학회 활동을 하지 않지만, 얼마 전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학회 분들이 주관 업무를 맡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역량들이 대단하더군요. 특히, 교사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열심히 하시더군요. 그런데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결정하는 게 옳은 건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관측대회에는 장관상이 걸려있고 이걸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경쟁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떤 것이 되었건, 학생 시절에 별을 본 경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인솔해서 온 교사들을 보고 부러웠다는 이성주 씨는 학교에 천문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었다고 한다.

“공립의 경우 몇 년이 지나면 학교를 옮겨야 해요. 그러다 보니 열성을 갖고 있던 선생님이 있을 때는 잘 운영되던 동아리도 그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떠날 때 다른 분이 이어서 맡아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대신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을 데리고 천문대를 갑니다. 지금은 좋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요. 밤이 긴 겨울 방학 직전에 가는데, 밤새도록 별을 보고 다음 날 옵니다. 한두 시간 별자리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놀라요. 물리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느냐고요.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 경쟁이 심합니다.”

교사가 된 것도 별 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별 모임을 하면서 가르치는 게 즐겁다는 걸 알게 된 것이 교사의 길로 이끌었다.

“천문가회 시절 서울 시내에 있는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공개관측회를 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금성을 보여주면서 저게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는 설명을 해주면 신기해 하고 좋아 하더라고요. 그때 가르치는 데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장래의 꿈이 되었죠.”

이성주 씨는 잘 가르치는 것만이 교사의 임무는 아니라고 얘기한다. 잘못된 길을 가는 학생이 있으면 올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안내자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요.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잘 가르치는 교사? 아니면 올바른 길로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교사? 둘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자에 좀 더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현실은 교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임용고시가 말 그대로 고시로 전락하다보니 대학교에서 오직 공부만 알다가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전공 외에는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문고판으로 나온 천문학 책이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TV에서 방영한 코스모스 시리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물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천문학이 아니고 왜 물리였을까.

“천문학은 마음이 안 끌렸어요. 그냥 취미로만 생각을 했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천문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책도 만들었어요. 친구 중에 컴퓨터를 전공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래아 한글이 나오기 전이

었죠. 그전까지는 직접 손으로 썼는데 컴퓨터로 가능하게 되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가평의 빌린 땅에는 현장사무소 가건물을 사다가 관측소를 만들기도 했다. 여름에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과학캠프도 진행했는데, 여기서 번 돈으로 망원경을 사고, 관측소를 짓는 데도 보탬이 되었다.

“별을 보면서 별 걸 다 해봤죠. 친구들을 만나 그때 얘기들을 하면 마냥 즐겁습니다. 지금은 다들 중년의 나이가 되어 가족들을 데리고 모이는데, 거기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별을 이야기 해줍니다.”

이성주 씨는 별만 편식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아마추어무선통신(HAM) 활동도 하고, 클래식 기타도 치고, 한강에서 요트도 탄다. 그리고 요즘 주된 취미는 마라톤이다.

“25번 정도 완주를 했죠. 보스턴마라톤대회에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학생들과 함께 뛰기도 해요. 뛰가 잘못해서 걸리면 저와 함께 뛰는 게 별입니다. 같이 달리니 체벌에 대한 불만도 적고, 달리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 10년쯤이면 은퇴할 예정이라는 이성주 씨는 광공해 없는 곳에다가 관측소 비슷하게 집 하나 짓고 사는 게 꿈이라고 한다.

“별을 좋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비슷해요. 음악 듣는 것 좋아하고, 자연 속에 묻혀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후보지들도 정해놨습니다. 돛도 하나 만들고 망원경도 하나 설치해야겠죠. 그 옛날 함께 별을 보던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돛 옆에는 HAM 안테나도 하나 설치해야겠죠.”

이성주 씨를 처음 대했을 때 가장 먼저 눈이 간 건 턱수염이었다. 그는 1년의 절반은 턱수염이 있고, 절반은 없다고 한다.

“입동부터 입하까지는 기르고, 여름에는 깎습니다. 이렇게 턱수염을 기른 게 15년이 넘었네요. 마라톤도 이봉주 선수의 턱수염과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다 보니 무슨 관계인지 묻곤 합니다. 물론,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턱수염 원조는 집니다.”

2월말에는 도쿄마라톤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이성주 씨. 그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내는 인내력의 비밀은? 바로 그 옛날, 임동설한테 수동가이드를 하던 그 인내력 덕분이란다. 그의 성공적인 완주를 기원해본다.

